

6. 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완공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자랑스러운 면모, 문명국의 척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줄수 있게 훌륭히 완공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전용기를 타시고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의 전경을 공중에서 부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평양국제비행장을 깨끗하고 규모있게 잘 건설하였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으로 꾸러진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에 걸맞게 평양국제비행장지구를 완전히 일신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의 복도식탑승다리로 내리시여 새로 건설한 항공역사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항공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현대적미감과 민족적 특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잘 시공하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출발대



기홀, 출발수속홀, 도착수속홀, 도착현관홀, 봉사홀, 귀빈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 및 봉사활동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지난 4월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돌아보

면서 내부시공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지적해주고 30여건의 개작형성안을 비준하여주었는데 짧은 기간에 건설을 끝냈다고 하시면서 구석구석 손색이 없고 완전무결하다고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당의 사

상과 령도를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숭고한 애국심을 안고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선군시대의 본보기적건축물로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 근로자들에게 당중앙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훌륭히 완공한데 맞게 관리운영과 봉사활동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7월 1일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고 항공봉사사업을 시작할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건설에서 발휘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더욱 고조시켜 부강하고 문명한 조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축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움으로써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여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여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비행장 활주로에 나가시여 여성전투비행사들의 리착륙단독비행훈련계획을 료해하시고 훈련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여성전투비행사들의 단독비행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나아린 처녀들이 정말 용라고, 하늘

의 꽃이라고, 건군사에 처음으로 여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이 태어났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훈련이 끝난 다음 여성전투비행사들인 조금향, 림설동무들을 만나시여 그들의 비행훈련 성과를 축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오늘은 첫 여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이 태어난 날이라고 하시면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 온 나

라, 특히 우리 녀성들이 기뻐할것이라고 동무들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의 장한 딸, 불굴의 녀성혁명가들이라고 거듭거듭 높이 평가하시며 그들을 곁에 세우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자기 딸들이 초음속전투기를 타고 사회주의조국의 하늘을 지키고있다는것을 알게 되면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하시면서 조금향, 림설동무들을 집에 보내어 오늘의 훈

련성과를 자랑하게 하자고, 항공군사령관과 정치위원이 함께 찾아가 훌륭한 딸을 둔 이들의 부모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여성전투비행사들이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더욱 억세계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수행하여야 할 비행훈련목표를 정해주시였다.

본사기자

사람들의 생활에서 약속은 흔히 있는 일이다.

예로부터 약속은 사람의 금새를 헤아려보게 하는 시금석이라 일러왔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신의가 없는 인간으로 치부하여왔다.

그러나 공화국 인민에게 있어서 약속이란 말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친분이나 생활에서의 신뢰라는 의미를 초월하여 가장 뜨거운 사랑, 저절로 마음이 끌리어 따르는 절세위인에 대한 매혹과 흠모의 의미로 더욱 숭엄히 새겨지고있다.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화

흔히 약속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련인들간의 약속, 부모와 자식간의 약속, 스승과 제자호상간의 약속, 벗들간의 약속 등에 대해 생각한다.

그 어느 력사의 갈피에도 령도자와 인민간의 약속이라는 말이 기록된적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에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위하시는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며 령도자와 인민간의 약속이라는 말이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송가로 끝없이 울려 퍼지고있다.

지금 이 시각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들과 사랑의 약속을 하신다.

공장과 농촌의 로동자, 농민들 또 외진 섬초소의 군인들과 과학자들, 나 어린 학생소년들과 만나시여 그이께서 하시는 약속은 늘 베푸는 사랑이고 행복이다.

어떻게 하면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인민들을 더 보란듯이 내세우겠는가 하는 그 숭고한 목적과 위대한 사명감으로 마음을 불태우시며 그이께서는 인민들과 하 많은 약속을 하신다.

그이의 약속에는 언제나 실천이 따르고 인민이 바라는 리상을 초월한 행복과 기쁨의 결과가 있다.

주체 102(2013)년 한해만 놓고보아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과 하신 약속은 그 얼마였던가. 8월의 뽕별이 쏟아지는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신 원수님께서서는 그날 오후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

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최고의 수준, 황홀한 경지에서 현실로 이루어주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에게 하신 약속이 현실로 펼쳐진 그 모든것을 살펴보면 어느 하나도 기성의것, 반복이라는것이 없다. 모두가 새롭고 이전 시기에는 도저히 볼수 없었던 황홀한 창조물들이다. 그래서 어디 가나 인민들의 감탄과 격정이 터져나온다. 살림집도 최고수준, 물놀이장도 최고수준, 스키장도 최고수준, 공장도 최고수준, 병원도 최고수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과 하시는 약속은 태양의 빛발과도 같이 로동자, 농민, 과학자, 교육자, 체육인, 군인, 늙은이와 아이들을 비롯하여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뜨겁게 흘러드는 사랑의 약속이다.

그이께서 아이들과의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시였는가 하는 이야기도 그 단적인 실례의 하나이다.

올해 설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신년사를 마치시는 길로 원아들의 집을 찾으시였다.

지난해 10월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돌아보면서 설날에 오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아이들과 한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 신년사를 마치는 길로 찾아왔다고 하시는 그이께 원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안기였다.

아무리 일감이 쌓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들이 많지만 원수님께 있어서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친아버지 사랑을 주는것만큼 바쁜 사업이 없었고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는것만큼 기쁜 일이 없으시였다. 원아들과 하신 약속은 원수님께 있어서 철부지 어린이들과 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를 떠메고나갈 앞날의 역군들과 하신 귀중한 약속이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과 하시는 약속의 실천은 보통의 실천이 아니라 최상의 실천이다. 그이는 인민들과의 약속

원 수 님 의 약 속

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최고의 수준, 황홀한 경지에서 현실로 이루어주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에게 하신 약속이 현실로 펼쳐진 그 모든것을 살펴보면 어느 하나도 기성의것, 반복이라는것이 없다. 모두가 새롭고 이전 시기에는 도저히 볼수 없었던 황홀한 창조물들이다. 그래서 어디 가나 인민들의 감탄과 격정이 터져나온다. 살림집도 최고수준, 물놀이장도 최고수준, 스키장도 최고수준, 공장도 최고수준, 병원도 최고수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과 하시는 약속은 태양의 빛발과도 같이 로동자, 농민, 과학자, 교육자, 체육인, 군인, 늙은이와 아이들을 비롯하여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뜨겁게 흘러드는 사랑의 약속이다.

그이께서 아이들과의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시였는가 하는 이야기도 그 단적인 실례의 하나이다.

올해 설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신년사를 마치시는 길로 원아들의 집을 찾으시였다.

지난해 10월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돌아보면서 설날에 오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아이들과 한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 신년사를 마치는 길로 찾아왔다고 하시는 그이께 원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안기였다.

아무리 일감이 쌓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들이 많지만 원수님께 있어서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친아버지 사랑을 주는것만큼 바쁜 사업이 없었고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는것만큼 기쁜 일이 없으시였다. 원아들과 하신 약속은 원수님께 있어서 철부지 어린이들과 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를 떠메고나갈 앞날의 역군들과 하신 귀중한 약속이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과 하시는 약속의 실천은 보통의 실천이 아니라 최상의 실천이다. 그이는 인민들과의 약속

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최고의 수준, 황홀한 경지에서 현실로 이루어주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에게 하신 약속이 현실로 펼쳐진 그 모든것을 살펴보면 어느 하나도 기성의것, 반복이라는것이 없다. 모두가 새롭고 이전 시기에는 도저히 볼수 없었던 황홀한 창조물들이다. 그래서 어디 가나 인민들의 감탄과 격정이 터져나온다. 살림집도 최고수준, 물놀이장도 최고수준, 스키장도 최고수준, 공장도 최고수준, 병원도 최고수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과 하시는 약속은 태양의 빛발과도 같이 로동자, 농민, 과학자, 교육자, 체육인, 군인, 늙은이와 아이들을 비롯하여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뜨겁게 흘러드는 사랑의 약속이다.

그이께서 아이들과의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시였는가 하는 이야기도 그 단적인 실례의 하나이다.

올해 설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신년사를 마치시는 길로 원아들의 집을 찾으시였다.

지난해 10월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돌아보면서 설날에 오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아이들과 한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 신년사를 마치는 길로 찾아왔다고 하시는 그이께 원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안기였다.

아무리 일감이 쌓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들이 많지만 원수님께 있어서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친아버지 사랑을 주는것만큼 바쁜 사업이 없었고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는것만큼 기쁜 일이 없으시였다. 원아들과 하신 약속은 원수님께 있어서 철부지 어린이들과 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를 떠메고나갈 앞날의 역군들과 하신 귀중한 약속이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과 하시는 약속의 실천은 보통의 실천이 아니라 최상의 실천이다. 그이는 인민들과의 약속

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최고의 수준, 황홀한 경지에서 현실로 이루어주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에게 하신 약속이 현실로 펼쳐진 그 모든것을 살펴보면 어느 하나도 기성의것, 반복이라는것이 없다. 모두가 새롭고 이전 시기에는 도저히 볼수 없었던 황홀한 창조물들이다. 그래서 어디 가나 인민들의 감탄과 격정이 터져나온다. 살림집도 최고수준, 물놀이장도 최고수준, 스키장도 최고수준, 공장도 최고수준, 병원도 최고수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과 하시는 약속은 태양의 빛발과도 같이 로동자, 농민, 과학자, 교육자, 체육인, 군인, 늙은이와 아이들을 비롯하여 이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뜨겁게 흘러드는 사랑의 약속이다.

그이께서 아이들과의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시였는가 하는 이야기도 그 단적인 실례의 하나이다.

올해 설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신년사를 마치시는 길로 원아들의 집을 찾으시였다.

지난해 10월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돌아보면서 설날에 오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아이들과 한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 신년사를 마치는 길로 찾아왔다고 하시는 그이께 원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안기였다.

아무리 일감이 쌓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들이 많지만 원수님께 있어서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친아버지 사랑을 주는것만큼 바쁜 사업이 없었고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는것만큼 기쁜 일이 없으시였다. 원아들과 하신 약속은 원수님께 있어서 철부지 어린이들과 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를 떠메고나갈 앞날의 역군들과 하신 귀중한 약속이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과 하시는 약속의 실천은 보통의 실천이 아니라 최상의 실천이다. 그이는 인민들과의 약속

에 혁명을 한다고 하시며 뽕뽕 12월의 겨울날에 물고기비린내가 진동하고 허영계 서리가 불리는 뽕뽕창고에도 들리시었고 물고기절임탕크의 작은 턱에도 스스로없이 앉아 사진을 찍으시였으며 물고기와 바다물이 튀어나는 하류장도 돌아보신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 인민을 위해 바치신 헌신의 로고와 무수한 뽕뽕울에 의해 공화국에는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인민들의 식탁위에 사회주의바다항기가 넘쳐흐르게 되었다.

인민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폭우에 감탕물이 흐르는 그런 날에 옥류아동병원과 류경구강병원건설장을 찾으시였고 룡라인민유원지건설장에서는 불어치는 먼지바람을 다 맞으신 원수님이시다. 그리고 과학자들을 위해 길없는 길을 헤치시며 몸소 지도를 펼치시여 휴양소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였고 문수물놀이장건설을 지도해주시느라 밤에도 찾으시었고 새벽에도 찾으시였다.

그야말로 공화국의 인민들은 원수님의 천만고생과 맛바꾼 반복속에 살고있으며 인민의 하나하나의 웃음과 노래소리에는 그이께서 바쳐가시는 로고와 심혈의 무한대한 세계가 비껴있다.

얼마전 원산에는 원산육아원과 애육원이 회한한 궁전으로 솟아올랐고 평양의 대동강기슭과 축섬에는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이 자기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며 솟아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과 하신 약속을 실천해나가는 과정은 끝없는 애민헌신이고 그 누구도 꺾어보지 못한 로고의 천만리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봉쇄 압살책동속에서도 나라를 지키면서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는 인민으로 내세운다는것은 그야말로 자기 희생을 각오한 헌신적복무정신과 노력이 없이는 상상도 할수 없는것이다.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숭고한 인민사랑의 약속에 받들려 솟아오르는 천하제일강국에서 우리 인민은 자자손손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문수물놀이장

